제5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을 마치고

제5회 고분자 산·학·연 하계 심포지움이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강원도 속초시 설악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산·학·연 심포지움은 고분자학회의 대표적인 여름행사이나 지난해에는 IMF 한파로 고분자학회 회원 및 전국민이 위축되어 있던 실정이라 행사를 하지 않았고, 올해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및 관계 인사들이 모여 고분자 관련 산업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년에는 용평이나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행사를 가졌었으나 한화리조트의 제반 시설이 우수해 장소를 강원도 속초로 옮겨보았으며,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어 무더위를 피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었다. 대부분의 참가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 회원 및 가족간의 친교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첫날 오후에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진정일 교수의 '한국고분자과학 및 공업발달사'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한국 고분자의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의 자료 및 강연이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동향과 사례에 대해 특허청의 조인제 국장이 '특허 실용신안 제도와 사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고, 극동전선 최병철 대표이사는 '전선산업에서의 고분자화학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둘째 날 오전은 참가자들 가족 별로 시간을 가진 후, 오후부터 심포지움이 재개되었는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선호 과장의 '기술표준원과 기술평가 및 인증'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아남반도체 한병준 이사는 '고집적회로 패케이징재료의 개발동향'에 대해 강연했는데, 국내 전자관련 기업 중 선도기업답게 세련된 발표자료화면과 관련 연구동향을 소개했다. 심포지움의 마지막 발표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장문호 박사는 '과학기술 활동의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강연했다. 모든 강연을 마치고는 참가회원 및 가족들과 간친회를 가져 고분자학회를 구심점으로 한 친교를 나누었다. 내년도 행사에는 산업계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3일간의 심포지움이 진행되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을 이해해주고 협조하여 주신 참가회원 및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기획이사 김성훈〉

참석자 명단

동부한농화학연구소	하영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현애	총무이사	이상원
부경대학교	안병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민수	조직이사	최동훈
생산기술연구원	이영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순만	조직이사	이명천
순천대학교	도춘호	한국화학연구소	이창진	편집이사	김준경
SK(주)	박현상	한국화학연구소	최길영	기획이사	차국헌
포항공과대학교	정진철	한국 P&G	안중우	기획이사	신동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곽순종	한양대학교	이영무	기획이사	이명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수현	한양대학교	임승순	기획이사	김성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정안	한양대학교	조창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류동식	회 장	성용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 민	수석부회장	김광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화섭	전무이사	김낙중		**합계 32명**